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2388호 2025. 2. 16.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 예레미야서 17,5-8

제2독서 :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12.16-20

복 음 : 루카 복음서 6,17.20-26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어린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기적을 선물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이지요.



(2019년 5월 6일 불가리아 라코프스키 첫영성체식 미사 교황님 말씀)

©Sr. WonGabriela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사랑이 넘치는

삼각지 성당 친구들의 1지구 체육대회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지구 초등부 체육대회가 8개 본당의 약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줄다리기, 계주, 2인3각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고, 특히 계주에서는 삼각지 성당 친구들의 멋진 활약 덕분에 청팀이 우승하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본당을 넘어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팀워크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단단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고, 부모님과 교사들도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말씀



2지구 성산2동 성당
조인규 마르첼로 신부님

참된 행복을 찾아보아요!

✦ 찬미 예수님!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세요. '가난, 굶주림, 눈물, 박해'를 겪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하시고, 반대로 세상에서 부유함과 칭송,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특히 더 사랑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두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부자인 사람들, 잘 먹고 웃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신 것은 자기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꾸짖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참된 행복인 하느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해요. 이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보다 부족한 친구를 먼저 챙기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번 한 주,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행복'을 꼭 찾아볼 수 있길 바랄게요~!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수상작



예수님 사랑해요.

잠실 성당 1학년 이연철 사도요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

신사동 성당 2학년 박시우

